

월드컵 단신

박지성 '월드컵 떠오르는 10대 스타'

'스포츠클리스트레이티드' 선정

박지성이 미국 스포츠전문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이하 SD)가 선정한 '2006 독일월드컵 떠오르는 10대 스타'에 선정됐다.

SD는 30일(한국시간) 인터넷판 보도를 통해 '떠오르는 10대 스타'를 선정 발표했다.

SD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형 미드필더 박지성은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였다. 당시 포르투갈을 탈락시키는 꼴을 넣

었던 박지성이 이번 대회에서는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할 대세'라고 평했다.

SD가 선정한 '떠오르는 10대 스타'에는 박지성 외에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 아드리안누(브라질), 후안 로만 리켈메(아르헨티나), 루카스 포돌스키(독일), 세스크 파브레가스(스페인), 크리스티아누 호나우두(포르투갈), 미셸 에시양(가나), 페르르 체흐(체코), 아르엔 로벤(네덜란드·이상 순번순)이 뽑혔다.

SD는 각 선수들별로 순번을 매겼는데 박지성은 맨 마지막 순서인 10번에 놓였다.

프랑스·스위스 내일 각각 평가전

덴마크·이탈리아와 상대

한국의 2006 독일 월드컵 본선 상대 프랑스와 스위스 축구대표팀이 나란히 유럽 강호들을 상대로 '실전 모의고사'를 치른다.

프랑스는 6월1일 오전 4시 랑스에서 북유럽 강호 덴마크와, 스위스는 이보다 10분 앞선 오전 3시50분 제네바에서 '아주리 군단' 이탈리아와 각각 월드컵 본선에 대비한 평가전을 치른다.

프랑스-덴마크전은 KBS2, 스위스-이탈리아전은 SBS에서 생중계한다.

프랑스와 스위스 모두 월드컵 최종 엔

트리 발표 이후 갖는 두 번째 평가전으로 상대가 주는 무게감은 월드컵 본선 경기 못지 않다. 덴마크는 비록 독일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지만 FIFA랭킹 11위의 강호로, 프랑스와 역대 A매치 전적에서도 3승3패로 호강했다.

스위스도 제대로 된 '스파링 파트너'를 만났다. FIFA랭킹 13위의 이탈리아는 독일 월드컵 우승후보 중 하나다. 스위스는 이탈리아와 역대 전적에서도 3승4무8패로 열세다. 특히 1993년 5월 치른 미국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 1-0으로 승리한 뒤로는 13년 동안(1무4패) 이탈리아를 꺾어 본 적이 없다.

한국 평가전 상대 가나 공격력 화끈

자메이카에 4대1 쾌승

독일월드컵을 향한 막판 담금질에 열중하고 있는 아드보카트호의 마지막 평가전 상대 가나가 자메이카와 평가전에서 화끈한 공격력을 선보였다.

가나는 30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잉

글랜드 레스터의 '더 위커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자메이카와 평가전에서 승리 문타리(우디네세)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상대 팀 수비수 데미온 스투어트의 '자살골', 스티븐 아피아(페네르바체)와 매튜 아모아(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추가골을 묶어 4-1 쾌승을 거뒀다.

토고 감독 아들, 한국 여성과 교제

토고 축구대표팀의 오토 피스터 감독이 국내 방송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아들이 한국인 여성과 교제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은 토고 훈련캠프가 마련된 독일 방겐에서 피스터 감독과 인터뷰를 한 김성주 아나

운서와 30일 오전 전화 연결을 통해 피스터 감독 아들의 여자 친구가 한국인이라고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독일 출신 피스터 감독은 '내 아들 여자친구가 한국사람이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났다'면서 '아내도 스위스인이다. 월드컵 G조 국가들은 나와 연관이 많다'고 말했다.



최경주 US오픈 대비 샷 점검

PGA 메모리얼 토너먼트 출전

1주일을 쉰 '탱크' 최경주(36·나이키골프·사진)가 시즌 두번째 메이저대회인 US오픈을 앞두고 샷 점검에 나선다.

무대는 6월1일(한국시간) 밤 미국 오하이오주 컬럼버스의 뮤어필드빌리지골프장(파72·7천300야드)에서 열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모리얼토너먼트.

2주 앞으로 다가온 US오픈을 겨냥해 실전 감각 끌어올리기에 초점을 맞춘 최경주는 뮤어필드빌리지골프장 코스를 유난히 좋아하는데다 그동안 성적도 좋아 상위권 입상이 기대된다.

최경주는 2002년 첫 출전했을 때 공동 32위에 그쳤지만 이듬해엔 공동 13위, 그리고 2004년 5위에 이어 작년에도 공동 8위를 차지해 뮤어필드빌리지골프장과 궁합이 맞았다.

뮤어필드빌리지골프장은 '살아있는 골프의 전설' 잭 니클로스(미국)가 태어나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컬럼버스에 공을 들여 조성한 명문 코스.

이곳에서 치를 메모리얼토너먼트는 니클로스가 주최자

로 나서기 때문에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다.

상금랭킹 1위 필 미켈슨(미국)을 비롯해 짐 퓨릭(미국), 스티븐 애플비, 조프 오기비(이상 호주), 채드 캠펠(미국), 로리 사바티니(남아공), 스티븐 에임스(캐나다), 레티프 구센(남아공), 비제이 싱(피지), 로드 캠펠링(호주), 호세 마리아 올라사발(스페인), 트레버 이멜만(남아공), 브렛 웨트링(미국), 애덤 스콧(호주), 팀 레언, 루카스 글로버(이상 미국) 등 상금랭킹 20위 이내 선수 가운데 16명이 출사표를 냈다.

PGA 투어 상금랭킹에서는 중위권 이하로 밀려 있지만 아니 엘스(남아공), 프레드 커플스(미국),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 등 이름값이 만만치 않은 스타 플레이어들도 즐비하다.

한편 타이거 우즈(미국)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딛고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US오픈에 대비한 연습에 들어갔다.

AFP통신은 30일 지난달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에서 공동 3위에 올랐던 우즈는 이달 초 부친상을 당한 뒤 골프채를 잡지 않았으나 28일부터 미국 뉴욕주 윈지컷 골프장에서 연습라운드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재홍기자 lion@kwangju.co.kr



"이승엽 벤트연습 재개"

日 '스포츠크지' 보도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4번 타자 이승엽(30)이 "팀의 선두 탈환을 위해서 상황에 따라 벤트를 대겠다"고 선언했다.

일본의 스포츠전문지인 '스포츠크지'는 30일 인터넷판에서 이승엽이 상황에 따라 벤트를 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주장인 고쿠보 히로키도 벤트를 대려한다. 누구라도 벤트를 성공하지 못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 나 또한 준비를 게을리 할 수 없다"는 이승엽의 말을 실었다.

이 신문은 요미우리의 역대 70번째 4번 타자인 이승엽이 지난달 9일 나고야돔에서 벌어진 주니치 드래곤스전에서 보내기 벤트를

실패한 씁쓸한 경험이 있다며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경기 전 벤트 연습을 재개했다고 덧붙였다.

하라 다쓰노리 요미우리 감독은 "4번 이승엽에게 작전을 내지 않겠다"고 공언, 편안하게 배팅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승엽은 그동안 화끈한 홈런포와 영양가 높은 적시타로 감독의 기대에 부응해왔다.

이같은 원칙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데 팀이 2위로 내려앉고 투타 부조화로 최악의 슬럼프에 빠진 현재 더 이상 강공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는 게 이승엽의 생각이다.

이승엽은 30일부터 삿포로돔에서 벌어지는 니혼햄 파이터스와 3연전에서 코리 리다르빗슈-야기 등 세 명의 선발 투수를 차례로 만난다. 4번의 자존심을 내던진 이승엽이 타선의 리더로서 팀 승리를 이끌 수 있을지 기대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금호아시아나 오픈 골프 내일 개막

'외국인 선수의 돌풍과 아마추어의 반란, 여기에 일본과까지'

올 시즌 대회마다 깜짝 우승자가 등장해 혼전 양상으로 치달고 있는 한국프로골프가 6월1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용인의 아시아나골프장(파72·6천710야드)에서 열리는 금호아시아나오픈을 끝으로 상반기를 마감한다.

지난 주 포카리에너오픈까지 6개 대회가 치러진 국내 프로골프는 아마추어 강성훈(19·연세대)과 김경태(20·연

세대), 외국인 선수 프롬 미사왓(태국)과 마크 레시먼(호주), 중견 박부원(41·링스골프)과 석종용(38·켈러웨이)이 우승을 나눠 가져 절대 감자가 없는 형국. 여기서 이번 금호아시아나오픈에는 일본프로골프에서 활약하고 있는 '3인방' 장익제(33·하이트), 김종덕(45·나노스울), 양용은(34·케이지디자인)까지 합세하면서 우승자를 쉽게 점칠 수 없게 됐다.

최재홍기자 lion@kwangju.co.kr

박찬호·서재응 내달 3일 출격

한국인 빅리거 선발투수 3인방 박찬호(33·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서재응(29·LA 다저스), 김병현(27·콜로라도 로키스)이 다음 달 차례로 출격한다.

샌디에이고와 다저스는 30일(이하 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박찬호와 서재응이 6월3일 피츠버그 파이리츠(오전 8시5분·PNC파크)와 필라델피아 필리스(11시40분·다저스타디움)에 각각 선발 등판한다고 예고했다.

콜로라도도 김병현이 다음 날인 4일 오전 9시5분 쿠어스필드에서 열리는 플로리다 말린스와 경기에 선발 등판한다고 발표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31일(수) ▲메이저리그(시카고W-블리블랜드) (08:00·Xports), <콜로라도-샌디에이고> (10:55·Xports)

▲청룡기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취문고-속초상고)(10:00·MBC ESPN)

▲일본 프로야구(니혼햄-요미우리)(17:50·SBS스포츠)

▲프로야구(한화-두산)(18:00·KBS SKY SPORTS), <KIA-LG>(18:30·MBC ESPN)

6월1일(목) ▲독일월드컵 축구 평가전(독일-일본) (01:50·MBC), <프랑스-덴마크>(03:50·KBS2)

Advertisement for 'outlet' featuring various clothing items and a 60-40% discount. The text includes '패션모직 본사 직송상품권 취급 60~40% 할인' and '백화점 1벌 가격으로 2벌 혜택'.

Advertisement for '서경빌딩 임대' (Seokyeong Building Rental) featuring a large building image and details about rental terms, including '보증금 1억 2천만원' and '월세 1억 2천만원'.